



부러운 피부미인



'봄별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별엔 딸 내 보낸다'던데 요 며칠 가을 햇살이 어찌나 따가운지 야외활동이 많은 나의 피부에 기미와 주름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하루하루 부쩍 피부가 늙어 가는 것 같아서 글프다. 하지만 늙어 가는 것이 비단 피부뿐이라? 피부는 그저 그중에 하나일 뿐이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유명하다는 피부과를 찾은 적이 있었다.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아니고 의원이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연예인 협찬도 많이 하고 외국인 피부 시술 패키지도 있는 기업화된 병원일까? 특수카메라로 촬영된 내 피부는 징그럽고 끔찍했다. 큰 모니터 화면으로 그 끔찍한 물결을 보면서 대표 원장과 상담을 했는데 총체적 한국의 내 피부 문제들을 손보려면 최소한 돈 몇 백은 써야 하는 모양이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환자며 직원이며 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관리를 해서 피부가 좋은 건지, 원래도 피부가 좋은 사람들이 계속 관리를 받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꽤나 충격적이었다. 여윌돈이 생기면 다시 와야지 했던 병원은 5년이 넘도록 못 가고 있다.

우리 때는 피부 관리라는 것이 딱히 없었다. 요즘에야 갓난아기부터 시골 할머니들도 피부 타입에 맞게 다양한 제품으로 보습을 하고 자외선 차단제도 챙겨 바르지만 내가 어릴 때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씻고 다니기만 하면 다행이었다. 내가 자외선 차단제라는 것을 바르기 시작한 것도 십대 후반 무렵인 것 같다. 그마저도 수영장이나 바닷가 정도나 가야 바르는

줄 알았지 평상시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는 것은 서른 가까이 되어 알았다. 이미 내 피부는 기미, 주근깨, 잔주름, 여드름과 흉터로 엉망이 된 후였다. 그러다가 결혼을 앞두고 나도 평생 처음 돈을 주고 피부 관리라는 것을 받아봤다. 그 시절 나에게겐 꽤나 큰 금액을 투자했었지만 효과가 드라마틱하지는 않았다. 피부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싶었다.

몇 달 전인가 친구가 부부동반 모임에 다녀와서 푸념을 늘어놓았다. 남편 친구의 아내가 어찌나 예쁘던지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만 함께 나란히 사진 찍고 싶은 마음마저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의 반짝이는 물광 피부에 기가 죽어 돌아왔다는 친구를 위로해 보았다. "에이 분명 엄청 돈 많이 쓰고 있을 거야. 보톡스, 필러, 물광주사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맞고." 돈 안 쓰고 너 정도 피부면 훌륭하다며 위로했다.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도 간 달걀, 도자기처럼 매끈하고 뽀얀 피부가 부럽다. 그들에게도 여드름이나 주름은 들쭉치고 잡티나 모공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그런 피부를 유지하려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만으로 피부 미인이 되었다는 분노를 부르는 연예인들의 발언은 절대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역시 피부과 시술인 건가? 울썬다? 리쥬란힐러? 엑셀브이? 프라셀? 이름들도 어렵고 헷갈리는 고가의 시술이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 아니겠지. 타고나는 것이 9할은 차지하겠지? 그렇다면 더욱 희망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팍

돌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다. 가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자, 마스크, 스카프, 팔토시 등으로 피부를 완벽히 차단하고 외출하는 사람들을 보면 피부 보호를 위한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온몸이 주근깨로 뒤덮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나가 돌아다니는데 말이다.

한때 나도 피부만 좋아지면 소원이 없을 것만 같았다(살만 빠지면 당장 비키니를 입겠다 같은 느낌으로 다가). 하지만 피부 좀 좋아진다고 뭐가 그리 달라질 수 있을까? 성인 여드름으로 고민하던 20대 때는 여드름만 없어지면 인기녀라도 될 줄 알았지만 마흔을 넘기고야 여드름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너무 늦은 것인지 아니면 분관 불변의 법칙인 것인지 그다지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피부를 갖고 여태껏 살았지만 나만 좀 불만이었지 딱히 뭐 불이익을 당한 것도 아니고 연애를 못한 것도 아니고 취직을 못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 대충 이만하면 그냥 살자 싶다가..... 또 거울 속에 나를 보면 심한해져서 어느새 기미 제거, 주름 제거, 리프팅 같은 것을 검색하고 있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무엇이든 맡겨 주십시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드림포올 프로그램 자격조건 (Borrower Requirements)

- First Time Home Buyer:** 처음 집을 구매하시는분 / 최근 3년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으신 분
- Maximum Income Limit:** 융자 받는 사람의 소득이 기준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Orange County (\$235,000) / LA County (\$180,000) / 기타지역 (확인하기)**
- Minimum Credit: 680** 최소 크레딧 점수가 6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All borrowers must occupy the property as the primary residence.** 융자 받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구매 완료날짜로 부터 60일 이내에 구매한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하지 않는 co-borrowers 혹은 co-signers는 불가능합니다.
- 주택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CalHFA에서 요구하는 홈바이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첫 주택 다운페이
20% 까지 정부 무이자
대출 보조금
지원 중

지금 전화주세요! > 아이비 949.501.8555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949.501.8555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